

37. 여름철 육성우에 대한 소금 급여방법은?

우리나라 여름철인 6~8월의 고온기 때에는 더위로 인한 스트레스로 젖소의 사료섭취량이 감소하게 되는데 기온이 27°C 이상 되는 고온기에는 호흡율 증가, 체온 증가, 사료섭취량이 7~12% 감소한다. 또한, 고온 스트레스 시 저하되는 면역 및 대사 작용을 증진시켜 줄 수 있는 사료급여가 요구된다. 이러한 이유로 젖소에게 여름철 고온 환경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에너지 사료의 보충과 상시 음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양체계를 보강하여 한다. 특히, 고온기 때는 땀과 호흡으로 배출되는 광물질(Na, K)의 양이 많기 때문에 별도의 양이온 광물질 급여가 필수적이어서 미네랄 불력과 음수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또한, TMR 사료를 육성우에게 급여시 광물질을 TMR에 혼합하는 경우 칼슘과 인의 첨가수준도 농후사료의 약 1%가 되게 하고 소금은 총건물량의 0.5% 또는 농후사료의 1%가 되도록 하여 여름철 땀과 호흡으로 배출되어 체내에서 부족 될 수 있는 무기물을 보강해 주어야 한다.

(낙농과 / 041-580-3381)